

## 소장품으로 생각하는 신라의 ‘발전’

옥재원, 108호 신라실 18:00~18:30

선사고대관 가야실을 지나 신라실로 들어서면, 단독 공간 안에 전시되고 있는 특별한 ‘금관’ 한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금관은 경주 황남대총 북분에서 발굴조사로 발견된 것입니다.

같은 형태의 금관이 현재까지 다섯 점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재료와 형태뿐만 아니라, 제작 시기라든가 부장 장소 등에서 몇 가지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특히 금관이 발견된 ‘적석목곽묘’는 다른 무덤들보다 규모와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탁월한 편입니다.



그림 1. 황남대총 북분 출토 금관

이러한 특징들은 제작 당시 신라의 정치 질서, 핵심 지배층의 권력·권위와 밀접한 것으로 파악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가볍게 정리하자면, 살아서 권력이 크고 권위가 높았으니 죽어서 귀중한 물품들을 탁월한 무덤 내에 수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 기간은 신라를 이끈 지배자가 ‘마립간’이라는 위호로 불렸던 시기입니다. 금관은 이렇게 특정한 시간 속의 신라 역사와 그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던 금관은 신라의 지배자가 집권체제와 제도를 바탕으로 더 강한 통치력을 행사해나간 ‘왕’의 시기에 들어설 때쯤이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퇴장 같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마립간시기 동안 일어난 사회 변동의 영향으로 무덤의 규모와 구조 및 조영 방식, 그리고 장의 물품의 제작과 부장 양상의 동향과 동반해 점진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변화 결과입니다. 신라실에 전시되어 있는 소장품들을 함께 보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난 변화와 그 배경을 꺼내면서, 당시 신라의 사회 ‘발전’에 관한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마립간시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및 가야사회와 본격적인 대결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지배자는 경주지역 내외에 걸쳐 권력을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아 신라의 지배자가 선택하고 지배층이 수용한 사회 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신라실의 장의 물품들로 함께 상상해 보고 싶습니다.

## 특별전 <인간, 물질 그리고 변형-핀란드 디자인 10 000년>(1)

백승미, 특별전시실 18:00~18:30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생존도구들은 환경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때로는 주문이나 주술, 혹은 문제 해결력이 중요했는가 하면, 도끼 한 자루만 주어져도 생존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삼림으로 이루어진 핀란드에서는 도끼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고의 도구였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칼 한 자루는 최근까지도 핀란드 농촌 남성의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물은 무엇일까요? 사람들과 연결되게 도와주고, 세상을 읽게 도와주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구. 이 모든 것이 하나에 담겼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생존 도구가 아닐까요? 어쩌면 현대의 생존 도구는 휴대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 온 무형의 도구도 있습니다. 바로 언어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소통의 과정은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위로 올려서 열어보는 이 책 커버는 생긴 모양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책을 넣어놓는 일종의 보관 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담긴 이 책 한 권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는 설레는 마음으로 엄지를 움직이며 이 책 커버를 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양 엄지손가락으로 열심히 휴대폰 자판을 누르며, 누군가와 소통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인간 소통의 근원이 되는 언어, 이 언어야말로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장 유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필루 형식 도끼  
나무-철, 케미에르비(Kemijärvi)  
©핀란드국립박물관 민족학자료컬렉션



노키아 커뮤니케이터 9000i>  
모바일폰,  
1996  
©헬싱키디자인박물관 컬렉션



책 커버  
나무, 이티(Iitti)  
©핀란드국립박물관 민족학자료컬렉션

## 자하紫霞 신위申緯와 취미趣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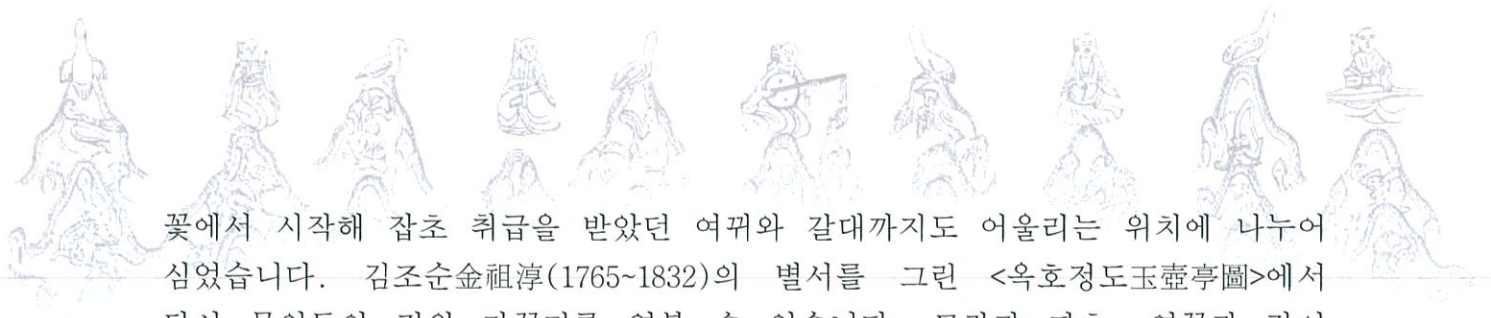
자하 신위 탄생 250주년 기념 서화전 - 자줏빛 노을에 물들다

이재호, 202호 서화실Ⅱ 19:00~19:30

2019년 자하 신위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 열린 서화전의 네 번째 대화를 엽니다. ‘전시실에서 낭독하는 자하 신위의 한시’ (2019.11.6.), ‘색의 향연, 신명연의 꽃그림’ (2019.11.13.), ‘왜 오늘 다시 자하紫霞인가’ (2019.11.20.)의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자료를 다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시서화 삼절三絶로서 신위를 다시 주목하며 그의 시를 읽었고, 삶과 예술이 하나된 전인全人으로서의 신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아들 신명연이 부친에 이어 펼쳐낸 아름다운 화조화의 세계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대화에서는 신위의 취미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취미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면서도 동시대의 문화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기에 한 인간을 이해하는 첩경이 됩니다. 신위는 남산자락 장흥방長興坊에 있었던 자택인 벽로방碧蘆房 내 양연산방養硯山房과 가문의 별서였던 관악산 북쪽 자하동紫霞洞을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신위는 바쁜 관직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공간에서 다양한 취미에 몰두했습니다. 이삼현李參鉉은 『종산집鐘山集』에서 벽로방의 구조를 말하며 “삼분의 일은 마루[軒]이니 다구茶甌, 약로藥鑪, 금낭琴囊, 기염碁奩 등으로 취미 생활을 즐기던 곳이며, 삼분의 일은 온돌방이니 더우나 추우나 아침저녁으로 주무시고 드시고 생활하시던 곳이며, 삼분의 일은 누각이니 늘 붓을 적서 오르시던 곳이다.” 라 하였습니다. 식사와 수면을 하는 방은 1/3에 불과하고, 1/3은 대청으로 만들어 차를 달이고 거문고를 켜고 바둑을 두는 여흥의 공간으로 꾸몄고, 나머지 1/3은 누마루로 만들어 시를 짓고 서화에 몰두하는 작업실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서유훈徐有薰이 이 집을 사들여 누마루를 줄이고 방을 넓혔는데 생활의 편의는 나을지언정 통속적인 구조가 되어버려 사람들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신위는 꽃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나 아름답다 여기는 모란과 매화 같은 꽃나무만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거들떠보지 않았던 식물도 기꺼이 마당에 끌어들여 섬세하게 가꾸었습니다. 청나라 여행에서 가지고 온 수선화, 춘천부사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올 때 옮겨 심은 자동화紫藤花와 같이 희귀한



꽃에서 시작해 잡초 취급을 받았던 여뀌와 갈대까지도 어울리는 위치에 나누어 심었습니다. — 김조순金祖淳(1765~1832)의 별서를 그린 <옥호정도玉壺亭圖>에서 당시 문인들의 정원 가꾸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란과 파초, 연꽃과 같이 전통적으로 사랑 받았던 화초, 단풍나무를 가득 심은 대, 포도와 오미자를 올린 시렁, 관목인 왜철쪽을 두른 마당 가장자리까지 갖가지 식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벽로방은 그보다 더 소박한 건물이었을 것이지만 계절 따라 피는 꽃나무와 이름 모를 풀꽃이 어우러진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꽃을 가꾼 신명연이 조선을 대표하는 화조화가로 자라난 것은 우연이 아니겠지요. 신위는 고동과 괴석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적지 않은 발품과 안목, 그리고 재력이 필요한 취미입니다. 고려청자와 백제기와가 집 안에 가득했다는 한재렴韓在濂의 언급은 신위가 중국의 고동기를 구입하여 완상하는 단계를 넘어 조선의 고동을 탐구하는데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초연이 쓴 「원앙석명에 제하다」에 화답한 시(和蕉硯題鴛鴦鳥銘後詩)」에 드러나듯, 이러한 취미는 유취관柳最寬(1788~1843), 김정희金正喜(1786~1856), 강이오姜彝五(1788~1857) 등 벗과 함께 공유했던 문화이며 중국 청나라와 대등하게 학예수준을 비교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서 모셨던 스승 강세황姜世晃(1713~1791)은 동작와연銅雀瓦硯 하나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이처럼 세대를 이어 문인의 취미는 확대되고 심화되었으며 학문의 경지로 나아갔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는 길가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기이한 돌 찾기에 골몰하고 수레 가득 무거운 돌덩이를 실어간 기행奇行 아닌 기행紀行은 이러한 취미가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려는 삶의 태도와 연결된 것은 아니었는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정중한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남들이 비웃지 않을 고상한 취미를 답해야 하나’ 혹은 ‘영화감상은 너무 진부하게 여기지 않을까?’ 라며 잠깐 망설이게 됩니다. 신위의 취미를 살펴보면, 저는 자신의 삶에서 뺄 수 없는 무엇인가가 과연 있는지 자문해보았습니다. 벽로방의 구조에 비유하자면 생존을 위한 활동은 1/3에 그치고 순수한 즐거움과 자아실현에 2/3를 쏟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비용과 시간의 문제는 신위라 해서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방을 줄이고 누마루를 넓게 만드는 결단,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여뀌와 갈대를 손수 파와서 정원에 심는 안목과 수고는 삶에서 취미가 주는 참된 가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 4세기 가락국에서 왜계문물의 소유

이양수 기획전시실 19:00~19:30

가락국은 4세기에 통형동기를 비롯하여, 파형동기, 광형동모 등 다양한 왜계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 대성동·양동리·예안리, 부산 복천동 세력이 위계에 따라 소유하는 물품의 차이가 확인됩니다. 대표적으로 파형동기는 대성동에서만, 광형동모는 대성동과 양동리, 통형동기는 대성동, 양동리, 부산 복천동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대성동 세력을 정점으로 왜계문물-사치품을 분배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배구조와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4세기의 가락국은 김해 대성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입니다.

	김해 대성동	김해 양동리	부산 복천동	김해 예안리
파형동기	●			
광형동모	●	●		
통형동기	●	●	●	
하지키	●	●	●	●



사진1 파형동기



사진2  
광형동모



사진3 통형동기



사진4 하지키